

↑ 코스피 2599.16 (+4.80)	↓ 코스닥 775.48 (-2.76)
↑ 금리 (미국 9년) 2.962 (+0.022)	↓ 환율 (원·달러) 1348.95 (-0.75)

m-커버스토리

韓 ‘딥페이크 공화국’ 음란물 피해 1위 오명

딥페이크가 뭐길래

“한국이 딥페이크로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영국 BBC)
 “한국은 오랫동안 ‘불법촬영 공화국’으로 불렸지만 이제 ‘딥페이크 공화국’” (프랑스 르몽드)
 대한민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1위’라는 오명을 썼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제처럼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을 뜻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장 개인 53%가 한국인... 가수 1595건 3년간 피의자 절반 이상 10대 관련규제 미흡, 예산안도 줄어

최근 AI의 발전으로 전세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선 SNS 사용 연령을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뒤늦은 대책 마련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대되면서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시큐리티허어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



유도이미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타격이 된 한국인 가수는 1595건의 딥페이크물에 등장했고 조회 수는 561만회에 달했다. 무엇보다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정도가 크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해자는 사이버 범죄 정도로 생각하는 반면, 피해자는 인격이 파괴 당하며 일상 생활이 불가할 지경까지 이른다.

이에 BBC·월스트리트저널(WSJ)·르몽드 등 주요 외신은 최근 한국의 딥페이크 음란물 사태를 집중 보도했다. 특히 한국은 10대 청소년들의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지난 3년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전체 비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달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812건이다. 검거된 피의자 387명 중 324명(83.7%)은 10대로 집계됐다.

문제는 관련 규제가 미흡해 국내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특히 약한 규제 강도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영상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기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의 피해 상담 건수는 약 2년간 4707건에 달함에도 운용인력은 6명 수준이다.

방통위의 딥페이크 관련 예산이 2024년 11억원 정도였지만 내년(2025년) 정부안은 9억원 정도로 조금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딥페이크 대처가 사후약방문 수준이다. 사전 규제를 해야 하는데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한다”고 지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S와 글로벌 AI·클라우드 허브로 도약”

‘KT AICT 사업전략’ 간담회 새 도약 위해 MS와 전략적 협력 한국형 AI로 AI산업 경쟁력 강화



AI 모델을 개발하고, 소형언어모델(SLM) ‘파이(Phi) 3.5’ 기반 산업별 특화 모델 등을 통해 한국 AI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국내를 넘어 세계의 ‘AI·클라우드 허브’로 도약을 선도할 것이며, ‘한국형 AI’로 대한민국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

김영섭 KT 대표(사진)가 10일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MS와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공개하며, 한국을 ‘글로벌 AI·클라우드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GPT-4o 기반 한국형

KT는 지난 9월 말 MS와 5년간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AI·클라우드·IT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력이 나선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한국어 특화 AI 모델과 서비스 개발, 한국형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AX 전문기업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향

출하기 위해 MS와의 전략적 협력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KT가 MS를 협력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MS는 글로벌 협력 경험이 풍부해 기업의 조직과 경영 체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회사”라면서 “클라우드·데이터·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가 파트너사로 결정된 데 대해 “MS는 세계 정보통신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KT의 인프라와 시장 전문성, 국내에서의 경험과 잠재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이혜민 기자 hyem@



아세안+3 참석한 韓·中·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아세안 정상들과 기념촬영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의장국인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 총리, 중국 리창 총리. <관련기사 2면> /뉴시스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4조... 역대 세번째

1~8월 누계 총수입 396.7조 국가채무, 8조 늘어 1167.3조

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8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3번째로 큰 적자규모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1167조원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396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기에 비해 2조3000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총지출이 447조원으로 21조3000억원 증가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50조4000억원의 적

자를 기록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 흑자수지 33조9000억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가 바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나라살림)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매해 1~8월 기준 역대 3번째로 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 최대인 96조원 적자, 2022년에 85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

으로, 올해 본예산 내 중앙정부 채무 예측치 1163조원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상환 스케줄이 있는데 만기상환이 12월 도래하는 규모가 17조~18조원 정도”라며 “연말까지 가면 당초 계획한(중앙정부 채무)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8월에도 본예산 규모를 초과했었다”며 “통상적으로 초기에는 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 말 결산 기준을 봐야 정확한 흐름이 보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상현 “김건희 여사 기소? 한동훈, ‘여론 재판’ 열자는 건가”
 ▲ 김용현, 나카타니 일방위대신 취임 축하 첫 통화... “국방협력 지속 발전” /사진 뉴시스

▲ 합참의장 “북한, 남북 도로·철길 8월에 전체 차단... 감시 다되고 있었다”
 ▲ 서울시 “오세훈 시장, 명태군 소개 받았지만 관계 안 이어가”



▲ 오늘부터 이틀간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476곳서 실시 /사진 뉴시스
 ▲ 윤 지지율, 1%p 내린 24%로 다시 최저치... 부정평가 66%